철근 건설업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우려

철근 기준가격 사실상 폐기… 철근 조달 어려움 · 원가 부담 가중

철근 기준가격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건설업체 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턴키방식으로 철근을 대량 구입하는 중대형사와 달리 유통업체로부터 소량을 구매하는 중소건설사 중소 현장의 철근 조달 어려움과 원가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경고를 의식한 현대제철이 철근 기준가격을 폐기하고 대신 3분기 철근 판매가격을 단독으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싹 긴장하고 있다.

현대제철이 기존 가격협상 기준인 스크랩가격 변동폭(2만6700원 인하)를 감안해 3분기 철근가격(10㎜ 기준)을 직전분기보다 t당 2만원 내린 61만5000원으로 정하면서 건설사들의 거센 저항은 피했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중국산 철근수입이 급감하면서 철근 수급 사정이 악화일로인데, 가격책정의 상한선 겸 안전판 역할을 한 기준가격이 폐지되면 사용량이 적은 중소건설사로선 웃돈을 줘도 필요한 철근을 확보하기 힘들어질 것이란 게 중론이다.

중견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수급상황이 어려워 유통단가가 높은데, 완충판까지 사라지면 국내 철근판매량(연 1100만t) 중 유통을 통해 팔리는 250만t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월간 최대 15만t, 적어도 10만t대였던 철근수입량은 지난 6월 5만t에도 못 미쳤다. 7월에는 아예 수입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급난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제강사들이 생산한 철근은 턴키방식으로 구매하는 대형건설사에 우선 배정된다. 대량구매하는 고객이자, 공급이 늦어질 경우 계약위반으로 위약금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철근 유통사의 한 임원은 "연간 판매량 중 절반 가량인 600만t이 턴키방식으로 중대형사에 우선공급되면서 유통시장에서 가장 흔했던 8m짜리 표준규격 철근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준가격이 폐지되면 중소건설사뿐 아니라 철근유통 중소기업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어려움 속에 건설업계 관심은 동국제강, 대한제강 등 나머지 6개 제강사들이 이달 말 대금 결재 이전에 정할 철근단가로 쏠리고 있다.

건설·제강사 간 가격협의체가 존속했던 지난 상반기까지 현대제철과 같은 가격을 기준가로 썼지만 이제는 공정위 눈치를 봐야하는 탓이다. 현대제철보다 높은 가격이면 건설업계 반발을, 낮은 가격이면 극심한 철근수급난 아래 수익을 개선할 기회를 놓친다.

건설사의 한 자재부장은 "가격협의체 구성 이전처럼 7대 제강사의 철근가격이 t당 1000원 차이를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겠느냐"며 "철근시황이 꺾이면 기준가격 폐기가 반대로 중소제강사들의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다. 과거 가격협의체 구성과 가격협상을 제강사가 먼저 요구했던 이유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담합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준가격 폐지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

공정위의 핵심 업무는 물론 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지키는 것이지만 을(乙)의 보호도 핵심 업무 중 하나다. 반면 기준가격 폐기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철근가격 협상의 담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철근가격 협상이 담합으로 결론이 날 경우 건설사들로선 동일한 방식의 전국 권역별 레미콘가격 협상도 모두 중단하고 입찰에 붙여 최저가로 구매해야 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기공사협 전북, 전기 공고 교장 초청 간담회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지난 5일 협회 회의실에서 도내 전기관련 공업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산기계공고와 이리공고, 전주공고 등 도내 6개학교 교장단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에서 주최하는 2017년 전국전기공사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참관요청과 전기공사업계와 공업계 고등학교의 취업연계 활성화 및 상호 상생방안에 대해 토의가 이뤄졌다.

또한 협회에서 그동안 기술자 양성을 위해 추진한 도제학교, 전기공사 병역특례제도 신청 등을 설명하고, 올해 개최되는 전국전기공사기능 경기대회 참가 및 참관을 요청해 전주공고에서 옥내배선부문에 참가키로 했다.

특히 업계와 공고 간의 취업연계 활성화를 위해 학교에서는 협회 회원사 중 구인업체를 파악해 학교에 홍보해 줄 것과 내년 3월~5월 중 협회에서 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실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전기공사협회 김은식 회장은 "학기 중에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부장선생님께 감사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우리업계와 공업계 고등학교의 상생발전을 위한 첫걸음으로 상호소통의 시간인 만큼 상호현황과 정보공유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코피아 연구원 파견으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농진청, 세계적 농업인재 양성 · 청년 취업 발판 마련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하, 코피아(KOPIA)) 연구원 파견이 '세계적 농업인재 양성'과 '청년 취업 발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903명의 청년 연구원을 코피아(KOPIA) 센터에 파견했다.

또한 지난 2012년~2014년까지 3년간 코피아(KOPIA) 센터에 파견을 다녀온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63.2%가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진흥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20개 개발도상국에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코피아(KOPIA) 사업 추진을 위해 해마다 농과계열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연구원을 선발·파견하고 있다.

연구원 파견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까지 903명을 파견했으며, 올 하반기에도 이미 33명을 선발해 교육을 마친 가운데 8월 1일 파견할 예정이다.

코피아(KOPIA) 센터에 파견된 연구원들은 6개월 또는 1년가량 현지에서 주요 작물 재배기술 및 가축사육기술 등을 연구하면서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코피아(KOPIA) 센터 파견 경험은 이후 연구원들이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디딤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12년~2014년까지 코피아(KOPIA) 센터 파견 연구원 총 403명 중 진학, 군복무, 확인불가 등을 제외한 220명을 대상으로 취업현황을 조사한 결과, 63.2%인 139명이 일자리를 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2014년 국내 146대학 취업률 55.9%보다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 66.9%(93명), 비농업분야 28.8%(40명), 기타분야 4.3%(6명)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 세부 취업 현황을 보면 공무원 11명, 공사 및 농·수협 9명, 종묘회사 6명, 농자재회사 13명, 농식품회사 15명, 연구소 4명, 기타 35명이다.

2012년 코피아(KOPIA) 베트남 센터에 연수생으로 파견을 다녀온 황순혁씨(농협 입사) "코피아(KOPIA) 센터에서 연구하며 일했던 경험이 직장을 구하는데 많은 이점으로 작용했으며, 현재 회사 생활을 하는데도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파견 연구원 취업현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올해는 2015년 파견 연구원 1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이규성 기술협력국장은 "청년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일자리가 새 정부 국제 핵심과제인 만큼 앞으로 코피아(KOPIA) 연구원 파견이 세계적 농업 인재 양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이스타항공, 하반기 신규 일본노선 2~3개 취항 검토

이스타항공이 일본 노선 강화에 나선다. 이스타항공은 하반기 신규 일본노선 2~3개 노선 취항을 검토 중에 있어 올 하반기 일본 노선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난 1일 인천-삿포로 노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한 이스타항공은 총 6개 일본 노선(인천-도쿄, 인천-오사카, 인천-후쿠오카, 인천-오키나와, 부산-오사카, 인천-삿포로)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도쿄(나리타)-홍콩, 인천-오사카(간사이)-홍콩, 인천-후쿠오카-홍콩 등 일본을 경유해 홍콩까지 가는 황금 삼각노선인 인터라인 노선을 구축해 일본 노선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반기 신규 노선이 확정되면 이스타항공은 10개 이상의 일본 노선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이스타항공이 일본노선 판매 활성화를 위한 노선 설명회를 5일 서울 명동 소재 알로포트 호텔에서 진행했다.

이스타항공은 우수판매여행사들을 대상으로 노선 설명 및 홍보와 더불어 여행사 대상 프로모션을 소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스타항공 전형준 영업본부장 및 영업본부 직원들과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 등 일본노선 우수 판매 대리점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안재용 기자

농진청, 한우 보증씨수소 16마리 선발

농촌진흥청과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가축개량협의회 한우분과위원회를 열고 한우 보증씨수소 16마리를 선발했다.

이번 한우 보증씨수소 선발은 농가들이 한우 정액 선택 시 도체중을 중요시하는 점을 고려해 기준에 도체중을 포함시켰다.

이번에 뽑힌 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우개량사업의 하나로 운영하는 한우육종농가에서 11마리가 선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4, 강원 1, 충북 1, 전북 2, 경북 3마리다. 한우육종농가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각 도에서 골고루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농협 한우개량사업소는 8월부터 이번 보증씨수소의 정액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암소 교배를 위한 정액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우 교배계획 길라잡이 책자와 엑셀 프로그램(www.nias.go.kr → 연구활용 → 농가활용프로그램)을 배포하고, 한우리 시스템(hanwoori.nias.go.kr)을 운영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농협은행 전북영업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NH농협은행 전북영업부는 최근 농번기를 맞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도내 농업인들의 고충을 함께 분담하고자 6일 농촌 일손 돕기를 했다.

이날 영업부 직원들과 도청,교육청 출장소 직원 등 10여명은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생강밭에서 제초작업과 생강 판매를 위한 포장 준비 작업을 실시했다.

가뭄과 일손부족으로 시름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추진 중인 범농협 임직원 일손돕기에 일선 영업점도 동참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안재용 기자